



Original Article

A Study of Comparing with Nursing Needs between Parturient Women and Nurses during the Perinatal Period*

Joo, Sook Nam¹⁾ · Youn, Mi-Sun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2) Faculty,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질식분만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비교 연구*

주 숙 남¹⁾ · 윤 미 선²⁾

1) 수원여자대학 간호과 교수, 2) 수원여자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ursing needs of parturient women with those of nurses during the perinatal period.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 two groups, one of which was composed of 244 postpartum women (vaginal delivery) while the other was composed of 144 nurse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between July and November of 2007, and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12.0 program. **Resul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nursing needs, specifically in the aspects of physical care, safety of delivery and newborn care between the nurse group and the parturient women group during the perinatal period. Furthermore, the nursing needs of parturient women were higher than those of nurses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needs, safety of delivery, newborn care, and especially among items such as routine exami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hygiene during labor, as well as a desire for “kind and faithful” car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nursing needs of parturient women in Women's hospitals were higher than those in University hospital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arturient women desire to be educated regarding Perinatal care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newborn.

Key words : Nursing care, Parturient, Women, Nurses, Perinatal

서 론

여성에게 분만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며 삶의 주기에서 개인의 독립적인 삶 속에 다른 가족구성원의 참여와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게 되는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임산부들의 산전 진찰 기회가 증가하였고, 병원분만을 선호하면서 분만의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병원분만은 집과는 달리 분만과정 중 가족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산모는 낯선 환

* 본 연구는 2007년도 수원여자대학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투고일: 2008. 4. 28 1차심사완료일: 2008. 5. 30 2차심사완료일: 2008. 6. 4 3차심사완료일: 2008. 6. 5 최종심사완료일: 2008. 6.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un, Mi-Sun(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Suwon Women's college Street 62, Kwonsun-Gu, Suwon, Kyonggi-Do 441-748, Korea.

Tel: 82-31-290-8174 Fax:82-31-290-8142 C.P.: 82-10-5122-9431 E-mail: ymsrose@swc.ac.kr

경의 노출, 의료기술이 개입된 분만의 증가(Yeo & Baek, 2001), 원하지 않는 분만과정의 노출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분만은 그전에는 겪지 못했던 심한 통증과 생리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 특별한 경험으로써 오래 기억되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Huh, 2000) 분만경험의 긍정과 부정여하에 따라 이후 산후우울증과 신생아 양육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은 가족전체의 경험으로 대가족제도하에서는 산모가 구성원들로부터 육아와 산육간호의 정보와 지지를 받았지만(Koh & Lim, 2002),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간호를 도와줄 가족자원의 부족과 역할모델의 부재, 신생아실과 산과병동 분리로 인한 모아에착형성의 어려움, 분만 1-2일후 조기퇴원 증가로 교육 기회의 감소를 초래하여 자가간호와 실제적인 신생아 돌봄에 많은 어려움과 당혹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원의 출산관련 간호는 주로 산전관리와 분만 중 간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만과 산육기 동안 간호사 수와 시간의 부족으로 간호사는 실제적인 간호문제 해결에 치중하여 주로 간호사의 판단과 업무스케줄에 따라 제공된다. 또한, 산모들은 교육이나 정보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Yoo, 2001) 교육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모간호는 산모의 실제적인 요구에 기초한 간호중재를 통해 입원 중 간호와 퇴원 후 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돌보기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Chun, 1997; Evans, 1991), 분만과 산육기 간호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간호중재방안의 개발과 수행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산모들에게 돌봄으로 지각되는 간호사의 특성은 전문적 능력과 기술, 책임감, 정중함, 협조적임, 효과적인 대화 기술로 나타났으며(Yeo & Baek, 2001), 산모들의 간호 요구와 간호사의 요구에 대한 지각이 일치될 때 만족된 간호 제공이 가능하므로(Han, 1995) 산모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는 무엇보다도 산모의 간호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여성과 가족의 생애에서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탄생하는 중요한 사건인 분만을 행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느끼게 하고, 특히 질식분만 동안 장시간의 고통스러운 분만진통을 견뎌야하며 육아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산모의 특성상 출산 시기에 산모 옆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질식분만 산모가 생각하는 간호요구에 맞는 분만과 산육기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질식분만 산모의 간호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산모 요구에 따른 간호중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산모에 대한 연구는 분만과 산육기 간호와 신생아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Huh, 2000; Kim, 2000; Lee, 1997; Nam, 2000)와 출산과 분만 경험에 대한 연구(Yeo & Baek, 2001), 간호지지 행위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 등이 주로 진행되었고, 임신부의 불안 공포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Kang, 1981), 출산경험 여성의 산후관리 중요도, 수행정도 및 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Kim, 1998)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간호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의 증가를 위해서는 간호대상자의 정확한 간호요구 파악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병원분만시 산모의 간호 요구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이 결여된 채로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 요구에 따라 일방적인 간호가 수행되고 있다(Han, 1995). 더구나 그동안 산모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만 간호제공자인 간호사와 대상자인 산모의 간호요구도 차이에 대한 연구는 Han(1995)와 Ahn(1976) 외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Han(1995)의 연구대상은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경험한 조기진통 산모 33명을 대상으로 분만실 간호사 32명의 임신과 분만진통중 간호요구를 Roy의 적응모델에 근거한 Premature Labor Need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정도를 비교하였으며, Ahn(1976)의 연구는 2개 종합병원 분만실 입원 산모 162명과 분만실 간호사 13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간호요구와 간호사의 활동을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실제 질식분만 산모와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차이를 직접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점차 임신합병증이나 태아 이상의 소견이 없는 대다수의 임신부들이 종합병원보다는 여성전문병원에서의 산전 진찰과 분만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긴 진료대기시간과 진료과정의 복잡함, 분만 중 여러 의료진으로 인한 많은 불편감이 많은 반면 여성전문병원은 온돌로 된 병실, 모자동실 환경, 종합병원 병실보다 편안한 분위기, 산후조리원이 같은 건물에 있는 편의성 등의 이유로 산모들이 여성전문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종합병원과 여성전문병원의 정확한 연간 분만건수를 분석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지만, 실제 본 연구대상인 여성전문병원 4곳의 월 평균 신생아 분만수는 120-350명이며, 실제로 종합병원은 평균 분만 신생아 30-60명 정도로 간호학생들이 실습 기간동안 분만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면 질식분만 산모의 이용율은 병원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점차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전문병원 이용 산모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여성전문병원 중심으로 질식분만 산모와 이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질식분만 산모의 간호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지한 산모의 간호

요구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효율적 질식분만 산모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질식분만 산모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질식분만 산모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간호요구도를 파악한다
- 3) 간호요구영역별 질식분만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차이를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1) 산모

본 연구에서는 분만 과정 중 특별한 합병증 없이 질식분만 후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산육기간호를 제공받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2) 간호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질식분만한 산모의 분만 1기부터 산육기동안 간호요구에 대해 산모 자신과 간호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이며, 분만 중 간호요구 40개 문항과 산육기 간호요구 41개 문항으로 7개영역에서 총 81개의 간호요구 문항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분만과 산육기 동안 질식분만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2곳과 여성전문병원 4곳에서 질식분만한 산모와 산모를 간호하는 분만실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분만 후 1일 이상 지나고 신생아는 설문시기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산모로서 연구참여를 허락한 244명이었다. 간호사는 산모의 간호요구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질문하는 것이므로, 경력 6개월 이상 된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 여성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를 허락한 114명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분만과 산육시기 산모가 요구하는 간호요구도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Nam(2000)에 의해 개발된 간호요구 설문지와 Jang(2001)과 Yeo와 Baek(2001)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식분만 산모의 간호요구는 총 81개 문항으로 질식분만 중 간호요구(신체, 환경, 안전분만, 교육, 지지의 5개 영역)와 산육기 간호요구(자가간호, 신생아 돌보기 교육의 2개영역)로 구성되었다. Likert Scale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전혀 원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원한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분만 중 간호요구 .84, 산모의 자가간호요구 .92, 신생아 돌보기 간호요구 .95였다(Nam, 2000).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산모와 간호사 전체 도구는 .97, 산모는 .96, 간호사는 .96이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07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2개 대학부속병원과 4개 여성전문병원에서 질식분만 후 1일 이상 지난 산모와,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각 병원의 간호부에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산부인과 병동이나 산후조리원에 입원중인 산모와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과 의의, 소요시간과 보상에 대해 설명 후 동의한 대상자에게 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을 시작하였다.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20-30분이었고, 산모와 간호사에게 300부와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44부와 114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산모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간호요구도 차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간호요구도

- 1) 질식분만 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간호요구도
산모의 평균연령은 30.7세이며, 대졸 학력이 66.8%였고, 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nursing need of the parturient women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otal nursing needs		
				M(SD)	t/F	p
Age	<30	121	47.4	4.09(.38)	.44	.664
	31-35	100	41.0	4.13(.37)		
	35-40	21	8.6	4.13(.28)		
	>40	2	3.0	4.11(.37)		
	Mean		30.74(3.3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	2.5	4.12(.32)	2.12	.098
	High school	44	18.0	4.00(.37)		
	College, university	163	66.8	4.12(.37)		
	>Graduate school	31	12.7	4.22(.33)		
Religion	Yes	114	46.7	4.11(.34)	.10	.913
	No	130	53.3	4.10(.39)		
Duration of marriage(years)	0-2	106	43.4	4.12(.36)	.20	.936
	3-4	65	26.6	4.09(.40)		
	5-6	48	19.7	4.10(.37)		
	7-8	13	5.3	4.15(.23)		
	>9	12	4.9	4.04(.37)		
Satisfaction about marriage	Very satisfaction	130	53.3	4.34(.43)	1.71	.148
	A little satisfaction	63	25.8	4.11(.22)		
	Average	41	16.8	4.07(.42)		
	A little unsatisfaction	6	2.5	4.02(.36)		
	Very unsatisfaction	4	1.6	4.13(.36)		
Prenatal disease	Yes	2	0.8	4.34(.54)	.87	.382
	No	223	91.4	4.11(.37)		
	No answer	9	3.7			
Participation with prenatal class	Yes	140	57.4	4.09(.37)	.87	.383
	No	104	42.6	4.13(.36)		
Number of prenatal care	Regular, 1-2/month	223	91.4	4.11(.37)	.76	.469
	3-4/During pregnancy	10	4.1	4.24(.29)		
	None	11	4.5	4.01(.46)		
Type of prenatal care hospital	University hospitals	12	4.9	3.87(.30)	.21	.030
	Women's hospitals	223	91.4	4.13(.37)		
	No answer	9	3.7			
Contraception	None	58	23.8	4.17(.37)	1.34	.239
	Natural	72	29.5	4.05(.38)		
	Condom	99	40.6	4.14(.36)		
	Intrauterine device	5	2.0	4.10(.14)		
	Oral pill	8	3.3	4.00(.33)		
	Postcoital contraceptive	2	0.8	3.68(.)		
	Yes	58	23.8	4.06(.35)		
Abortion	No	186	76.2	4.12(.38)	1.06	.290
	Yes	58	23.8	4.06(.35)		
Number of abortion (n=60)	1	41	68.3	4.09(.37)	.44	.664
	2	15	25.0	4.09(.21)		
	>3	4	6.7	3.64(.15)		
	Cannot caring for newborn	14	25.9	4.05(.47)		
Cause of abortion (n=54, no answer;4)	Unmarried	5	9.3	3.99(.17)	.64	.666
	Not son	2	3.7	4.11(.20)		
	Short interval with other baby	5	9.3	4.29(.27)		
	Exposure of drug, X-ray	11	20.4	4.13(.29)		
	Therapeutic	5	9.3	4.13(.29)		
	Prematurity	12	22.2	4.08(.25)		
	Postpartum care after abortion	29	52.7	4.05(.31)		
Postpartum care after abortion (n=55, no answer;3)	Yes	29	52.7	4.05(.31)	.08	.930
	No	26	47.3	4.06(.40)		

교가 있는 경우는 46.7%였으며, 결혼기간은 4년 이내가 70%, 약 10%는 7년 이상이였다. 결혼만족도는 약간 만족(25.8%)과 매우 만족(53.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 중 2(0.8%)명이 임신성 당뇨와 경증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합병증 발생은 없었다. 산전교실 참여자는 57.4%이고, 91.4%가 산전 정기적 진찰을 받았으며, 피임을 안하는 경우는 23.8%였고, 피임하는 경우 방법은 주로 콘돔(40.6%)과 자연주기법(29.5%)을 사용하였다. 유산은 23.8%가 경험하였으며 그중 31.7%는 2회 이상이었고 주 원인은 키울수가 없어서(25.9%), 조산아인 경우(22.2%), 임신 중 방사선이나 약에 노출되어서(20.4%)로 나타났다. 유산 후 52.7%가 몸조리를 하였으며, 대부분 집에서 쉬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질식분만 산모의 총 간호요구에서 가장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인 특성은 결혼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한 경우(4.34)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간호요구도는 학력, 결혼기간, 나이, 임신 관련 질환, 결혼만족도, 산전교육, 종교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산전진찰 병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t=.21, p=.030$), 여성전문병원 이용 산모들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산모의 학력에 따라 총 교육적 간호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71, p=.046$), 학력이 낮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아 중졸이 가장 높았다. 산모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2.46, p=.046$),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아 매우 만족한 그룹이 교육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다<Table 2>.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간호사가 인지한 질식분만 산모의 간호요구도

간호사의 연령 그룹은 30세 이하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경험은 25.4%가 있었고, 미혼 64.9%, 종교가 있는 간호사는 46.5%였다. 대부분 분만실(45.6%)과 산부인과 병동

(47.4%)에 근무하였고, 일반간호사가 84.2%였으며, 근무경력 은 2-5년 사이가 34.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고(96.5%), 여성전문병원간호사가 전체의 81.7%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가 인지한 질식분만 산모의 총 간호요구도를 살펴보면, 수간호사의 총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4.21), 다음으로 경력 15년 이상(4.17), 결혼한 간호사(4.16) 순이였다. 간호사가 인지한 질식분만 산모의 총 간호요구도는 간호사의 출산유무, 결혼, 종교유무, 경력, 병원종류에 따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간호요구 영역별로 나누어 볼 때 간호사의 출산경험유무에 따라 산욕기 자가간호 교육요구($t=4.57, p=.035$)와 신생아 돌보기 교육 요구($t=4.01, p=.048$) 영역에서 간호사가 인지한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간호사 직급에 따라 신체적 간호요구($F=7.05, p=.000$)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호요구도 차이를 나타냈다<Table 5>.

2. 질식분만 산모와 간호사의 영역별 간호요구도 차이

간호요구 영역과 문항별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총 간호요구도는 산모 4.11 간호사 4.15로 간호사가 인지한 질식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더 높았으나,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적 간호요구(산모 4.06, 간호사 4.00), 안전분만 간호요구(산모 4.35, 간호사 4.20), 신생아 돌보기 간호요구(산모 4.34, 간호사 4.20)는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보다 높았다. 영역별로 보면 산모의 간호요구도는 안전분만 간호요구(4.35)가 가장 높았으며, 신생아 돌보기 교육요구(4.34), 교육적 간호요구(4.21), 지지적 간호요구(4.07), 환경적 간호요구(4.07), 산욕기 자가간호 교육요구(4.04), 신체적 간호요구(3.74) 순이였다. 반면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교육적 간호요구(4.21)가 가장 높았고, 안전분만 간호요구, 신생아돌보기와 신체적 간호요구(4.20), 지지적 간호요구(4.13), 산욕기

<Table 2> Educational nursing needs of parturient women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nd satisfaction of marriage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Educational nursing need		
				M(SD)	F	p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	2.5	4.83(.54)	2.71	.046
	High school	44	18.0	3.63(.44)		
	College, university	163	66.8	3.73(.41)		
	>Graduate school	31	12.7	3.85(.38)		
Satisfaction about marriage	Very satisfaction	130	53.3	4.77(.24)	2.46	.046
	A little satisfaction	63	25.8	4.33(.31)		
	Average	41	16.8	4.32(.53)		
	A little unsatisfaction	6	2.5	4.25(.48)		
	Very unsatisfaction	4	1.6	4.09(.49)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nursing need of nurses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otal nursing need		
				M(SD)	t/F	p
Age(years)	< 30	75	65.8	4.11(.32)	.20	.934
	31-35	20	17.5	4.07(.33)		
	36-40	9	7.9	4.19(.34)		
	41-45	5	4.4	4.11(.29)		
	> 46	5	4.4	4.11(.25)		
Experience of childbirth	Yes	29	25.4	4.12(.27)	.19	.848
	No	85	74.6	4.11(.33)		
Marriage	Married	40	35.1	4.16(.32)	1.12	.262
	Unmarried	74	64.9	4.09(.31)		
Religion	Yes	53	46.5	4.11(.35)	.19	.842
	No	61	53.5	4.12(.29)		
Department of working	Delivery room	52	45.6	4.14(.32)	.11	.889
	OB&GYN unit	54	47.4	4.09(.27)		
	OPD, Office	8	7.0	4.11(.22)		
Job position	Manager	1	2.6	4.38(.)	.45	.718
	Head nurse	6	5.3	4.21(.25)		
	Chief nurse	11	9.6	4.14(.32)		
	Staff nurse	96	84.2	4.10(.32)		
Years of employment	< 2	30	26.3	4.05(.28)	.40	.803
	2-5	39	34.2	4.13(.38)		
	5-10	22	19.3	4.10(.27)		
	10-15	15	13.2	4.16(.29)		
	> 15	8	7.0	4.17(.26)		
Education level	College, bachelor	110	96.5	4.12(.32)	.47	.703
	Master	3	2.6	4.07(.28)		
	Doctor	1	0.9	3.86(.)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20	17.4	4.06(.28)	.80	.422
	Women's hospital	94	81.7	4.12(.32)		

<Table 4> Nursing need of nurses according to experience of childbirth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eeds in self-care during postpartum period			Needs in education for newborn care		
				M(SD)	t	p	M(SD)	t	p
Experience of childbirth	Yes	29	25.4	3.96(.32)	4.57	.035	4.10(.43)	4.01	.048
	No	85	74.6	3.99(.48)			4.19(.51)		

<Table 5> Physical Nursing Need of nurses according to nurses's Job position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hysical Nursing Need	F	p
				M(SD)		
Job position	Manager	1	2.6	3.00(.)	7.059	.000
	Head nurse	6	5.3	4.50(.29)		
	Chief nurse	11	9.6	4.28(.32)		
	Staff nurse	96	84.2	4.16(.31)		

자가간호 교육 요구(4.05), 환경적 간호요구(4.00) 순이었다.

간호요구 7개 영역별 산모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간호요구 영역의 간호요구도 평균은 간호사(4.20)가 산모(3.74)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9.49$, $p=.000$). 문항별로 보면 내진 시 설명과 불편감 감소가 산모(4.47)와 간호사(4.56) 모두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산모의 간호요구도는 투약과 처치 정확한 실시(4.45), 노출된 부위 차단(4.43)이 높고,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노출된 부위 차단(4.43), 투약과 처치 정확한 실시(4.32)가 높았다. 즉 내진 시 설명과 불편감 감소 외에는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며, '산모상태 규칙적 관찰'(산모 4.34, 간호사 4.07)과 '몸의 청결유지'(산모 4.37, 간호사 3.94)가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를 보였으며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더 높았다.

환경적 간호요구 영역의 간호요구도 평균은 산모(4.06)가 간호사(4.00)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1,2위 문항은 피문은 시

트 교환(산모 4.41, 간호사 4.22)과 충분한 휴식과 수면(산모 4.36, 간호사 4.22)으로 같았다. 산모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피문은 시트 교환, 옆 산모 고함 소리 괴로움, 1인실 원함, 자유로운 침대 조절, 충분한 휴식과

<Table 6> Differences in nursing needs of items between parturient women and nurses

Items of nursing needs		Parturient women (n=244)	Nurses (n=144)	t	p
		M(SD)	M(SD)		
1)	Physical nursing needs	3.74(.42)	4.20(.47)	9.49	.000
1	Regular inspection of the mother's status	4.34(.64)	4.07(.60)	4.01	.000
2	Looking after the mother in pain, when sitting and walking	3.98(.82)	3.93(.70)	.63	.526
3	Checking urination during labor pain	3.98(.74)	3.85(.67)	1.66	.097
4	Explaining and reducing discomfort during vaginal exam.	4.47(.65)	4.56(.56)	.03	.184
5	Covering exposed parts	4.43(.67)	4.43(.59)	.05	.960
6	Maintenance of hygiene	4.27(.74)	3.94(.57)	4.66	.000
7	Accurate dosage and medical treatment	4.45(.67)	4.32(.62)	1.80	.072
8	Checking the bleeding and secretion of the vagina	4.27(.69)	4.28(.58)	.03	.971
2)	Environmental nursing needs	4.06(.48)	4.00(.45)	-1.24	.214
1	Frequent replacement of blood-stained sheet	4.41(.64)	4.22(.62)	2.86	.005
2	Distress caused by shouting of other mothers nearby	3.47(.86)	3.82(.82)	3.72	.000
3	A single room	4.08(.83)	3.86(.75)	2.56	.011
4	Easy and flexible manipulation of the bed	4.08(.82)	3.89(.71)	2.30	.022
5	Sufficient rest and sleep	4.36(.62)	4.22(.62)	2.00	.045
6	Explaining the environment of delivery room	4.04(.74)	4.03(.71)	.05	.953
3)	Nursing Needs in safe delivery	4.35(.51)	4.20(.41)	-3.06	.002
1	Delivery on time	4.35(.74)	4.32(.64)	.38	.703
2	Assurance from status check of the mother	4.07(.72)	3.64(.74)	5.40	.000
3	Assurance from cardiac sound check of the fetus	4.19(.73)	4.14(.70)	.61	.541
4	Efficient and good delivery	4.64(.59)	4.54(.62)	1.44	.148
5	Curious on the fetal status during labor pain	4.50(.64)	4.38(.58)	1.76	.079
4)	Educational nursing needs	4.21(.53)	4.21(.41)	.08	.933
1	Curious on the progress of delivery	4.25(.73)	4.30(.60)	.70	.480
2	Curious on healthcare after delivery	4.35(.64)	4.17(.64)	2.61	.009
3	Explanation following medical check-up	4.39(.64)	4.34(.57)	-.75	.449
4	Pre-delivery education	4.12(.73)	4.17(.62)	.72	.470
5	Following the breathing method helps	4.00(.82)	4.01(.68)	.10	.920
6	Explanation on the reason for pain helps	3.87(.81)	4.00(.71)	1.55	.120
7	Medical personnel's answers to questions	4.35(.68)	4.38(.59)	.44	.660
8	Explanations on the nursing practice and treatment	4.26(.72)	4.31(.56)	.73	.465
9	Explanation on uterine contraction (normal, danger)	4.26(.74)	4.26(.62)	.04	.964
5)	Supportive nursing needs	4.07(.45)	4.13(.41)	1.15	.249
1	Kind words of the nurse and doctor	4.52(.62)	4.47(.53)	.71	.475
2	Frequent check-up during labor pain	4.33(.69)	4.38(.58)	.76	.444
3	Giving encouragement during difficulty	4.31(.71)	4.32(.60)	.19	.844
4	The presence of a nurse/medical staff nearby	3.60(.88)	3.84(.77)	2.72	.007
5	Giving massage during labor pain	3.68(.83)	3.70(.73)	.31	.755
6	Being with family during labor pain있음	4.48(.64)	4.34(.66)	1.99	.047
7	Personal, humane treatment	4.33(.71)	4.39(.65)	.84	.397
8	Talking with fellow mothers	3.03(.93)	3.56(.81)	5.36	.000
9	Moving freely	3.63(.80)	3.90(.75)	3.20	.002
10	Helping to keep a comfortable posture	4.33(.63)	4.22(.57)	1.64	.101
11	Helping to reduce pain	4.44(.64)	4.35(.59)	1.27	.204
12	Helping in emotional expression	4.15(.73)	4.11(.69)	.45	.651

<Table 6> Differences in nursing needs of items between parturient women and nurses(continued)

Items of nursing needs		Parturient women (n=244)	Nurses (n=144)	t	p
		M(SD)	M(SD)		
6) Nursing needs in self-care during a postpartum period		4.04(.50)	4.05(.45)	.09	.929
1	When shampooing is possible	4.24(.70)	3.90(.71)	4.48	.000
2	When a shower is possible	4.30(.68)	4.03(.67)	3.58	.000
3	Maintenance of episiotomy wound	4.33(.74)	4.30(.61)	.29	.771
4	How to reduce pain during postpartum period	4.45(.69)	4.36(.61)	1.26	.205
5	How to examine postpartum bleeding	4.29(.72)	4.23(.60)	.83	.403
6	Maintaining breasts	4.56(.65)	4.44(.54)	1.70	.090
7	Maintaining nipples (Preventing cracks)	4.47(.70)	4.06(.66)	5.44	.000
8	How to increase milk flow	4.54(.67)	4.33(.62)	2.96	.003
9	How to control milk flow	4.05(.92)	3.98(.74)	.68	.491
10	Dangerous symptoms of the mother	4.45(.64)	4.21(.65)	3.38	.001
11	When to start housework	4.12(.80)	3.78(.75)	3.98	.000
12	Nutrition and water intake	4.10(.71)	3.90(.73)	2.52	.012
13	Prohibited drugs during nursing period	4.37(.63)	4.25(.68)	1.78	.076
14	When and how to start contraception	4.02(.77)	4.03(.73)	.08	.930
15	When to start sharing beds	3.83(.76)	4.02(.68)	2.47	.014
16	How to rest and sleep sufficiently	4.06(.73)	3.86(.73)	2.46	.014
17	Maintaining emotional tension	4.01(.78)	3.86(.74)	1.70	.089
18	Changes in urine and feces	4.09(.74)	4.03(.69)	.68	.494
19	Preventing constipation	4.08(.76)	3.85(.68)	2.89	.004
20	Maintaining hemorrhoids	4.03(.84)	4.00(.64)	.36	.715
21	How to exercise	4.00(.84)	3.78(.77)	2.59	.010
22	How to check uterine contraction following labor	4.34(.72)	3.93(.69)	5.31	.000
7) Nursing needs in education for newborn care		4.34(.53)	4.20(.53)	.21	.023
1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	4.42(.65)	4.29(.62)	1.76	.078
2	Giving a bath	4.26(.72)	4.32(.67)	.87	.384
3	Changing diapers	3.93(.80)	3.95(.76)	.29	.770
4	Prevention of diaper rash	4.26(.67)	4.17(.61)	1.23	.219
5	Maintaining the navel	4.33(.67)	4.19(.66)	1.82	.069
6	Jaundice of newborn baby	4.38(.67)	4.24(.62)	1.92	.055
7	Vaccination	4.36(.70)	4.28(.61)	1.07	.283
8	Nursing posture	4.18(.76)	4.19(.68)	.19	.846
9	Nursing time and time interval	4.25(.71)	4.19(.61)	.85	.394
10	How to guide the baby to the nipple (latch on)	4.22(.75)	4.21(.62)	.10	.918
11	Inducing burp	4.07(.75)	4.02(.69)	.73	.461
12	How to check milk temperature	4.07(.80)	3.97(.71)	1.19	.231
13	How to check the condition of baby during sleep	4.25(.74)	4.08(.67)	2.15	.032
14	The meanings of baby's cries	4.39(.70)	4.07(.69)	4.14	.000
15	How to manage vomiting	4.43(.68)	4.27(.58)	2.30	.022
16	Hunger/fed reactions of the baby	4.38(.69)	4.10(.67)	3.69	.000
17	Symptoms of sickness	4.60(.58)	4.31(.63)	4.42	.000
18	Dangerous symptoms of the baby	4.68(.53)	4.39(.63)	4.43	.000
19	First aid to the baby	4.70(.50)	4.37(.60)	5.16	.000
Total nursing needs		4.11(.37)	4.15(.33)	.87	.385

수면이었다.

안전 분만 간호요구 영역의 평균은 산모(4.35)가 간호사(4.20)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6$, $p=.002$). 문항별로 보면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1,2위 문항은 빨리 잘 분만하기(산모 4.64, 간호사 4.32)와 진

통 중 태아 상태 궁금함(산모 4.50, 간호사 4.38)으로 같았다. 또한, 산모상태 측정으로 안심됨이 산모(4.07)와 간호사(3.64)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호요구도 차이($p=.000$)를 보였다.

교육적 간호요구 영역의 간호요구도 평균은 산모와 간호사가 같았으며(4.2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항별 간호요구도를 보면, 산모는 내진 후 설명(4.39), 궁금
중에 대한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4.35), 분만 후 건강관리
(4.35) 순으로 높았고, 간호사는 내진 후 설명(4.34), 간호행위
와 치료에 대한 설명(4.31), 분만진행 과정 궁금함(4.30)에 대
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분만 후 건강관리 궁금함이 산모
(4.35)와 간호사(4.17)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9$)를 보
였다.

지지적 간호요구 영역의 간호요구도 평균은 간호사(4.13)가
산모(4.07)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간호사(의사)의 친절
한 말(산모 4.52, 간호사 4.47)로 산모와 간호사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산모는 진통 중 가족과 함께 있음(4.48), 통증 감소
법을 지지해 줌(4.44) 순이었고, 간호사는 인격적 대우(4.39),
진통 중 자주 관찰함(4.38)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산모
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호요구도 차이를 보인 문
항은 옆에 간호사(의료인)가 있음, 옆 산모와 애기함, 진통 중
가족과 함께 있음, 내 마음대로 움직임이었다.

산욕기 자가간호 교육 영역의 간호요구도 평균은 간호사
(4.05)가 산모(4.0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항별로는 산모와 간호사 모두 유방 관리
(산모 4.56, 간호사 4.44)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문항은 젖 분비 증가방법(4.54), 유두관리
(4.47), 산모의 위험 증상(4.45)과 산욕기 통증 감소 방법(4.45)
이었고, 간호사는 산욕기 통증 감소 방법(4.36), 젖 분비 증가
방법(4.33) 순으로 높았다. 산모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간호요구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삼푸, 목욕가능시기와 유
두관리, 젖 분비 증가방법, 산모의 위험증상, 집안일 시작 시
기, 산모의 영양과 수분 섭취, 부부생활 시작시기, 충분한 휴
식과 수면 방법, 변비 예방, 산욕체조방법, 산후 자궁수축 확
인 방법이었다.

신생아돌보기 교육 요구 영역의 간호요구도 평균은 산모
(4.34)가 간호사(4.20)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1$, $p=.023$). 간호요구도가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산모는 아기의 응급처치법(4.70)과 위험증상(4.68), 간호사는
아기의 위험증상(4.39)과 응급처치법(4.37) 순으로 높았다. 산
모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호요구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아기 수면양상, 아기 울음의 의미, 토할 때 관리, 아기
가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 반응, 아기가 아플 때 증상, 아기
위험 증상, 아기의 응급 처치법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질식분만 산모와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
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간호요구도 차이, 산모와 간호사간 간

호요구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총 간호요구도는 Ahn(1976)과 Han(1995)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여 총 간호요구는 간호사가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산모 평균은 3.08인 Han (1995)과 분만시 간호요
구 4.05, 신생아돌보기 간호요구 4.05인 Nam(20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이나 본 연구는 간호요구도가 높은 여성전문병원의
산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산모의 총 간
호요구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는 Nam(2000)의 분만 중 간호요구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하나, 종교, 가족구조, 산전교육 참석여
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자가간호 요구와 신생아돌보
기 간호요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산모의 결혼기간에 따
른 간호요구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기간 7-8년
(4.15)과 0-2년(4.12)에서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여, Nam (2000)
의 결과인 결혼기간 1년 미만에서 1년 이상보다 산욕기 간호
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나, 특히 결혼기간이
길면 1년 미만과 마찬가지로 간호요구가 높으므로 경산부라
할지라도 입원기간 중 더욱 집중적인 교육과 간호중재를 제
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산모는 교육적 간호요구 영역에서
학력이 낮거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적 간호요구가 높
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중재 요구에 따라 중재도 달라져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전문병원(4.13)에서 산전진찰 받은 산모의 간호요
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간호요구가 종합병원 4.05,
개인의원 3.96인 Nam(2000)의 연구와 산후관리 중요도가 종
합병원 3.15, 개인의원 2.96, 조산소 2.33(4점 척도)인 Kim
(1998)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발
견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여성전문병원의 증가, 진료의 편의
성, 가족 같은 분위기의 분만환경을 선호하면서, 정상임부의
경우 여성전문병원의 분만건수가 종합병원보다 상당히 높음을
고려할 때 특히 모성 건강 측면에서 여성전문병원의 표준화
된 산모교육 프로그램과 산욕기 간호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
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출산유무에 따라 산욕기 자가간
호요구, 신생아 돌보기 교육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분만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상호의존적, 역할
기능적 간호요구의 인지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Han(199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여, 출산경험은 분만실 간호사에게는 간호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역별 간호요구도 차이를 보면 산모는 안전분만 간호요구
를 간호사는 교육적 간호요구에서 가장 높은 간호요구를 보
였는데 이는 산모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간호업무의 빈
도와 중요도에 따라 간호요구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초임부대상의 Chun(1997)의 결과 육아에 대한 교육적 요구(4.29), 환경적 정서심리적 간호와 산모의 자가간호에 대한 교육(3.96), 신체적 간호요구(3.80)가 높았으며, 산모와 간호사 모두 자아 개념적 간호 요구(프라이버시, 안심, 감정표현, 질문대답, 느낌 표현, 이름 호명)가 가장 높았다(Han, 1995; Lynam & Miller, 1992)고 하여 각 연구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산모와 간호사의 영역별 간호요구도의 우선 순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산모는 안전 분만 간호요구, 교육적 간호요구, 신생아 돌보기 간호요구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 영역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방안 마련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신체적 간호요구는 산모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Han(1995)은 간호사(3.22)가 산모(3.09)보다 높고, Ahn(1976)은 산모(3.07)가 간호사(2.94)보다 높아(음식주기, 가려움, 신체청결과 배뇨, 회음면도) 연구에 따라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 비교는 일치하지 않았다. 산모상태 규칙적 관찰과 몸의 청결 유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모에게 높았는데, Ahn(1976)은 음식과 물주기, 회음부면도와 양치질, 배뇨관리가, Han(1995)은 진통 동안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 회음부위 면도, 종교인이 방문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문항별 간호요구도 차이는 다양했으며, 이는 질식분만, 제왕절개, 조기진통 산모라는 대상자의 다양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내진 시 설명과 불편감 감소, 노출된 부위 차단, 산모상태 규칙적 관찰 이었는데, 이는 이상증상 관찰, 정확한 주사, 조심스럽게 다룸(Ahn, 1976), 산모상태의 규칙적 관찰(Chun, 1997; Lee, 1997), 산모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기를 바람, 산모가 원하는 체위로 취하기를 바람(Yeo & Baek, 2001)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신체적 간호요구는 산모가 가장 원하는 중재를 제공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환경적 간호요구 영역 중 피 묻은 시트 교환, 1인실, 자유로운 침대 조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모의 요구도가 높아 Han(1995)의 핫이불을 갈아준다와 Ahn(1976)의 소화하기 쉬운 음식 줌, 검사치료 결과 알려줌, 보호자 같이 있음, 진찰 시 가려움,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를 볼 때 진통 산모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분만을 원함을 알 수 있다. Han(1995)의 결과 출산 전 태아상태 의사와 논의, 응급상황 준비, 신생아 안전보장, 진통 중 태아상태 관찰, 솔직한 대답이 본 연구보다 높았는데, 이는 조기진통 상황에서 태아의 조산위험성과 관련된 간호중재 요구가 높음을 나타내며 대상이 진통과 분만을 경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만진통중인 산모와 조기진통 임부의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옆 산모의 고통소리 괴로움이 가장 높았는데, Ahn(1976)의 결과는 음모 면도, 배뇨관리, 태아심음측정, 면도의 이유와 방법 설명의 요구가 높아, 산모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간호사는 분만실 환경 설명에 대해 더욱 간호요구도가 높으며 간호업무 중심으로 간호요구도를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 안전분만 간호요구는 산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Han(1995)의 조기진통 산모는 태어날 신생아와 진통과 분만 과정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Ahn(1976)의 태아심음 측정, Nam(2000)의 안전 분만 영역에서 가장 높은 요구(초산모 4.28, 경산모 4.32)를 나타냄을 볼 때 안전분만 간호요구 영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는 산모상태 측정으로 안심됨의 간호요구가 산모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의 기본 업무이므로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는 낮았으나 산모는 상태확인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심되므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간호요구 영역은 분만 후 건강관리가 산모와 간호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Ahn(1976)의 검사와 치료 결과 자세히 알려줌, Han(1995)의 조기진통 산모는 회음부위 면도 설명, 관장에 대한 설명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만삭과 조기진통 산모의 차이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산모는 내진 후 설명, 궁금중에 대한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 분만 후 건강관리 요구도가 가장 높았는데, Chun(1997)의 산모의 궁금중에 대한 자세한 설명, 치료와 간호 시 설명이 가장 높고, 간호사는 궁금중에 대한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 내진 후 설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산모와 간호사의 교육적 간호요구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지적 간호요구 영역에서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 중 가족 동석은 산모의 요구도가 높았는데, 분만과정 중 산모 곁에 누군가를 참여시킨 실험군에서 제왕절개, 감자분만, 경막하마취 비율이 낮아짐을 보고(Jang, 2001)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Bryanton, Fraser-Davey와 Sullivan(1993)은 애정, 개별적 도움, 산부가 진통 중 솔직한 대답, 인격적 대우, 수용을 원하였으며, Yeo와 Baek(2001)은 인터뷰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가장 많이 진술하였으며, 듀라의 지지는 분만진통과 상태불안 감소와 긍정적 경험 효과(Huh, 2000)와 가족간의 유대감, 소속감 강화, 산모의 안위와 분만 대처능력 강화(Jang, 2001), 긍정적인 분만 경험을 갖게 한다(Tarkka & Paunonen, 1996)는 여러 연구결과를 볼 때 개별적인 간호요구 사정을 통한 분만 중 가

족 동석은 중요한 간호중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는 의료인의 친절한 말 문항이 가장 높아 친절이 분만 중 간호지지의 중요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통 중 불편한 점이나 요구사항으로는 무관심, 불친절, 혼자 있으므로 부탁하기 어려운 점, 분만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Jang, 2001) 등이며, Brown과 Johnson(1998)은 분만 중 불만족 간호요인으로 의사결정의 참여 부족, 불충분한 정보, 인위적 중재, 간호제공자가 도움이 안 된다고 지각할 때라고 하였으며, Simkin(2007)은 산모가 경시 당하거나 위협조절 노력이 좌절될 때 부정적인 충격을 오래 기억하며, 산부가 돌봄, 친절, 존중, 참여자처럼 느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오래 지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분만의 불안과 공포, 통증, 분만스트레스 대처와 분만경험은 임산부의 자기 효능감(Drummond & Rickwood, 1997)과 지지적 간호중재로 조절이 가능함(Tarkka & Paunonen, 1996)을 인식하여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산모의 독특한 간호요구를 반영한 개별적 간호중재가 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인격적으로 대함과 진통 동안 등 마사지가 산모와 간호사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진통 산모의 간호수행으로써 마사지의 지속적 제공이 어려워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신마사지는 산모의 정서적 불안과 공포 완화, 분만진통과 분만스트레스 반응을 감소(Chun, 1997)시키므로 통증감소법인 마사지를 이용한 간호중재의 적극적 수행이 요구된다.

산욕기 자가간호 교육요구 영역에서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는 비슷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모 간호요구가 높은 젖 분비 증가방법, 가사시작 시기, 충분한 휴식과 수면 방법, 변비 예방, 산욕체조방법 등은 입원 기간이나 퇴원 교육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산모와 간호사의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산모는 유방관리, 젖 분비 증가방법, 유두균열 예방, 간호사는 유방관리, 통증완화방법, 젖분비 증가방법의 요구도가 높아 Chun(1997)의 결과 젖 짜는 법, 목욕시키기, 유방 청결과 마사지법, 유두균열 예방법이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병원에 와야 할 위험 증상과 산후 합병증 조기발견(Donna & Loveland, 1998), 유방의 울혈관리, 모유 수유방법(Koh & Lim, 2002) 순으로 높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설문 시기가 분만 후 1-2일 지난 입원 중 산욕 초기 산모로서 시기적으로 유방관리가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과, 병원방문 위험증상과 산후출혈 관찰증상이라는 2개 문항으로 위험요인관련 내용을 질문하여 요구도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산모는 산욕기 각 시기에 따라 가장 원하는 간호요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머리감기와 목욕시기, 유두와 유방관리, 젖 분비

방법 등 실제적인 자가간호에 대한 산욕기 간호요구도가 산모에게 높으나, 신생아와 분리된 환경, 조기퇴원, 퇴원당일에 실시되는 퇴원교육, 간호사의 인력부족 문제로 산모의 67%가 병원에서의 산후조리가 없었다고 인식하므로(Kim, 1998) 전문인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제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산욕기 신체회복을 위해 자궁퇴축, 산후출혈 예방, 산후통, 회음절개 불편감 감소 등이 요구되며, 여러 연구에서 정상 질분만 산욕부의 가정간호 프로그램 운영 시 산모의 불편감은 회음 절개와 열상, 유방울혈, 요통 순으로 나타났고, 신생아는 비효율적 모유수유, 인공수유 영양장애, 영양결핍(Williams & Cooper, 1993) 문제를 보였다는 결과를 참고할 때 산욕기 자가간호와 육아에 대한 가정방문간호사나 지역사회 전문인을 통한 적극적 교육과 중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신생아 돌보기 교육요구 영역에서 본 연구결과 산모(4.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Lee(1997)의 결과 경산모는 산욕기 자가간호요구가 신생아 돌보기 교육요구보다 높았고, 초산모와는 신생아 돌보기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Nam, 2000)는 결과로 볼 때 초산모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높고 경산모는 산욕기 자가간호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문항은 응급처치법, 병원에 와야 할 증상, 아플 때 증상, 토할 때 관리였는데, Chun(1997)은 아기의 정상 성장과 발달, Yoo(2001)의 아기의 질병 인식하기, Koh와 Lim(2002)은 수유, 예방접종, 제대관리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항목 중 정상 성장발육과정과 아기가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 반응은 입원 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간호사가 반드시 퇴원이나 산모 교육을 수행하는 내용인 수유 관련 내용과 목욕시키기 등은 산모에 비해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더 높았다. 즉 간호사는 자주하는 업무의 요구도가 높고 산모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조기 퇴원으로 산모교육의 어려움과 산모들의 모성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Evans, 1991) 신생아 돌보기 교육은 어머니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퇴원 후 산욕기 중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간호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가정방문간호와 같은 실제적인 추후관리의 적절한 실시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질식분만한 산모와 경력 6개월 이상의 분만실과 산과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분만시기 간호요구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총 간호요구도는 간호사가 질식분만 산모에 비해 높았으나, 영역별로 보면 분만 환경과 안전한 분만, 신생아 돌보기 영역

의 간호요구는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 보다 높았으며, 두 그룹간에 신체적 간호와 안전한 분만, 신생아 돌보기 간호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호요구도 차이를 보였다. 즉 간호사가 일상적인 업무로 여기는 규칙적 관찰, 청결유지, 휴식과 수면 등과 의료인의 친절한 말과 설명, 가족 동석에 대해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욕기 자간간호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산모의 간호교육 요구도가 높아 임신과 입원기간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퇴원 후 산욕기의 자간간호 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가정방문 간호, 지역사회 연계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 여성전문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91.4%이며 이들의 간호요구도가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 비해 높다는 것과 새로운 분만환경에서의 산모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본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 밝혀진 질식분만 산모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문항에 대한 적극적 간호중재 방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왕절개 분만 산모는 산욕기라는 신체 생리적 변화 과정과 수술 후 간호라는 두 가지 상황의 간호중재가 요구되므로 제왕절개 산모 대상의 간호요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간호요구도 파악 연구를 통해 제왕절개 산모의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중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H. S. (1976). A comparative study of reported nursing needs and nursing care during labor and delivery. *J Korean Acad Nurs*, 6(1), 51-59.
- Brown, S. G., & Johnson, B.T. (1998). Enhancing early discharge with home follow-up; A pilot project.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7(1), 33-38.
- Bryaton, J., Fraster-Davey, H., & Sullivan P. (1993). Women's perceptions of nursing support during labor.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3(8), 638-644.
- Chun, Y. J. (1997).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of primipara during the early postpartum peri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3(1), 5-19.
- Donna, B., & Loveland, C. A. (1998). Postpartum teaching priorities: The viewpoints of nurses and mothers.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7(2), 161-168.
- Drummond, J., & Rickwood, D. (1997). Childbirth confidence: validating the childbirth self efficacy inventory(CBSEI) in an Australian Sample. *J Adv Nurs*, 26, 613-622.
- Evans, C. J. (1991). Description of a home follow up program for childbearing families.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0(2), 133-138.
- Han, K. R. (1995). A study of mothers' and nurses' perception of the nursing needs of women experiencing premature labor.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 76-93.
- Hur, M. H. (2000). Effects of one-to-one labor support on labor pain, labor stress response, childbirth experience and neonatal status for primipara. *Korean J Women Health Nurs*, 7(2), 188-202.
- Jang, M. J. (2001). *Effect of family-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 delivery room on the childbirth of primipara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ang, J. H. (1981). A study of fear and anxiety of pregnant women. *J Korean Acad Nurs*, 10(2), 1-11.
- Kim, Y. G. (2000). *Nursing need of pregnancy, delivery, postpartum for unmarried mothers based on Roy's adaptation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Seoul.
- Kim, T. K. (1998). *A correlational study on the level of Importance & performance of postnatal care and its relationship with centered on the women who experienced deliv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oh, H. J., & Lim, K. H. (2002). A comparison of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2), 217-228.
- Lee, J. S. (1997). *A study on the home health care need of postpartum mothers-focused on the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ynam, L. E., & Miller, M. A. (1992). Mother's and nurses' perception of the needs of the needs of women experiencing preterm labor.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1(2), 126-136.
- Nam, S. S. (2000). *Nursing need of primiparas and multiparas during labor and deliver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imkin, P. (2007). *The birth partner: A complete guide to childbirth for dads, doulas, and all other labor companions (3rd ed.)*. Boston: The harvard Common Press.
- Tarkka, M. T., & Paunonen, M. (1996). Social support and its impact on mothers' experiences of childbirth. *J Adv Nurs*, 23, 70-75.
- Williams, L. R., & Cooper, M. K. (1993). Nurse-managed postpartum home care.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2(1), 25-31.
- Yeo, J. H., & Baek, S. H. (2001). A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needs at labor pain. *Korean J Women Health Nurs*, 7(4), 499-507.
- Yoo, Y. J. (2001). A study on the home health care needs of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7(4), 579-595.